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8호 【루계 제23010호】 주체99(2010)년 2월 27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전당, 전국, 전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전국농업대회가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는 나라의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대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67(1978)년 1월 27일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을 청취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여기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분야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깃들어있다.

지금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농업근로자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뜻깊은 기념일을 계기로 전국농업대회를 마련하시여 나라의 농업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으며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나라의 농업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안아올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웅대한 작전을 펼치고 그 승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이번에 소집된 전국농업대회는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이번 대회는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으로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려는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철석같은 신념을 과시한 의의깊은 대회였다.

지금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따라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비상한 각오와 애국의 한마음으로 끓고있다. 쌀로써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려는것이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며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적각오가 얼마나 투철한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대회참가자들과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며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종자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선군시대 농업발전의 대강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기어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려는것이 대회장에 차넘친 혁명적열정이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함께 하며 광명한 미래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일심단결의 기상과 애국적헌신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주공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려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힘있게 과시한 대회라는데 전국농업대회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번 대회는 나라의 전반적농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비약과 혁신의 대회였다.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총화되고 좋은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다수확우량품종의 종자들을 도입하여 농업생산을 늘인 경험,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인 경험, 동해안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한 경험을 비롯한 수많은 성과와 경험들은 나라의 농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대회에서는 축산물과 남새, 과일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한 문제들도 토의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업의 발전전망은 대단히 좋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농업의 기초를 이루는 토지와 물문제해결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도처에 강성대국리상촌들이 일떠섰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널리 일반화되여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생활력과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진 우리 농업의 토대와 잠재력이 남김없이 발양될 때 나라의 농업발전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오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농업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며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모두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로!》라는 구호를 들고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온 나라 농장벌에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려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농업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념원을 지니시고 한평생 험한 농촌길을 쉬임없이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의 자욱은 우리의 사회주의농촌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다. 모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종자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원종, 채종체계를 바로세우고 다수확우량품종의 종자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를 과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두벌농사적지를 바로 정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대홍단식감자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콩농사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콩농사에서 높은 수확고를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들을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유기농법의 요구대로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며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고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수리화의 우월성을 더욱 높여 가물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축산물, 남새,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며 과일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근로자들은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몸바쳐 결사관철해나가는 참다운 선군혁명투사가 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영농조직과 로력, 설비, 자재,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전사회적으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며 련관부문, 련관단위들에서 영농물자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이 계속 앞장에서 내달려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년간 수많은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선군시대의 본보기단위, 사회주의경쟁단위로 내세워주시였다. 현지지도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몸소 씨를 뿌리시고 행복의 열매를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미곡과 신암, 삼지강, 은흥, 동봉과 오국을 비롯한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알곡증산의 혁신적성과들을 계속 창조하며 농촌마을들을 오곡백과 주렁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의 투쟁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며 벌방과 중간, 산간지대를 대표할수 있는 시범단위들을 정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패는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을 맡고있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농업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는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과학기술적으로 깐지고 알뜰하게 하여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농촌부문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전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가 맡고있는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5돐을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전국농업대회진행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농업대회가 25일과 26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붉은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전국농업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선군시대의 애국농민, 농민영웅이 되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김영일동지, 리용무동지, 최태복동지와 곽범기, 박명선, 박수길 내각부총리들, 도당책임비서들, 내각성원들, 성, 중앙기관, 도, 시, 군 당 및 인민위원회, 농업지도기관 책임일군들, 농장초급일군들, 모범적인 농장원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련관부문 공장, 기업소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7(1978)년 1월 27일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를 육성록음으로 청취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곽범기내각부총리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인민이 올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농업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 농업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들끓는 대고조격전장들에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나날에 사회주의협동벌들과 농업생산과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시고 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한해에 한개 농장을 세차례나 찾아주시고 비료문제를 푸시려고 흥남땅에서 락원땅으로 천수백리길을 달리시며 농업전선을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위대한 사랑은 농업근로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킬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지난해 과학농사의 귀중한 경험과 감자농사, 두벌농사, 콩농사의 모범들이 창조되였으며 미곡벌의 가을풍경, 대동강과수종합농장풍경과 같은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 리상촌들이 도처에 일떠서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미곡과 신암, 삼지강과 은흥, 동봉협동농장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만경대농장, 청산협동농장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고 룡천군, 안악군을 비롯한 30여개의 시, 군과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등 수많은 농장들이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서 기본고리인 종자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이 도입되여 농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이 한계단 높아졌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영농물자들을 해결하고 알곡과 축산물, 과일, 남새생산을 늘이며 고향마을을 아름답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에 애국의 열정과 땀을 바치였다.

성, 중앙기관들과 도, 시, 군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농사에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농사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보고자는 지난해의 농사를 통하여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절감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지으면 나라의 식량문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대회참가자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새로운 력사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우리앞에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농업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며 나라의 식량문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보고자는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전선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모두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로!》라는 구호밑에 올해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3면으로 계속

전투현장을 화선식정치사업의 활무대로

각지 당조직들에서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고있다.

그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전투적기상이 차넘치고 새로운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는 매우 위력한 정치사업방법입니다.》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을 화선식정치사업의 무대로 정하고 항일유격대식으로 경제선동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경제선동무대를 펼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경제선동을 패기있게 진행하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경제선동의 화력을 경공업부문의 공장들과 협동농장들에 집중하는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직관선동과 방송선전을 패기있게 벌려 전투장들이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전투장들에 도적으로 수십대의 방송선전차, 50여개 단위의 기동예술선동대가 동원되여 공동사설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이 통이 크게 벌어지게 되였다.

경제선동의 북소리는 4대선행부문과 경제강국건설이 벌어지는 모든 전선과 전투장을 들었다놓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 일군들을 내려보내여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탄광들에 내려가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4대선행부문이 대고조의 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가 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깊이 심어주면서 석탄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전투현장에 들어가 직관선동과 해설담화, 예술선동을 전투정황에 맞게 활발히 벌림으로써 일터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강재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고 지적한 공동사설내용을 해설해주면서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비약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지금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참신하고 패기있는 경제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일호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혁명의 불길높이 인민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이 26일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에 도착한 대회참가자들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을 주체농법관철에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이 촬영에 함께 참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할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주체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불패의 조선혁명

력사적인 남호두회의기념일을 맞으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로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이하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기념일,

조선혁명에서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하게 한 남호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덧 70여년이 흘렀다.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남호두회의와 더불어 빛발친 주체의 진리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가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오늘도 세차게 높뛰고있다.

남호두!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커다란 쇠스레나무와 잣나무가 한그루씩 서있어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던 경박호반의 그 크지 않은 귀틀집이 눈에 선히 어려오고 조선혁명의 력사적분수령이 마련되였음을 알리며 세차게 휘날리던 붉은 기폭의 퍼덕임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70여년전 2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위대한 수령,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따르면 그 어떤 역경이 앞에 가로놓인다 해도 혁명의 새로운 앙양기가 펼쳐진다는것을 오늘도 철의 진리로 깊이 새겨주고있다.

남호두회의와 같은 주체로 빛나는 애국의 전통을 가지고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처럼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면서도 언제나 백승의 력사만을 수놓을수 있었다.

남호두회의는 조선혁명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벽하게 확립한 회의였다. 바로 여기에 남호두회의가 우리 혁명과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거대한 지위가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은 그 이후 여러 단계의 혁명에서 조선의 혁명가들로 하여금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나 그것을 민족의 첫째가는 생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호두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게 되였다. 그런 의미에서 남호두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와 1930년대 후반기를 구획짓는 조선혁명의 분수령이라고 할수 있다.》

남호두회의는 주체25(1936)년 2월 27일부터 여러날에 걸쳐 진행되였다.

그때 회의장에 세워졌던 붉은기는 주체의 길이야말로 백전백승의 길이라는 심원한 혁명의 진리를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돌이켜보면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간악한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폭압과 략탈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켜보려고 악랄하게 날뛰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어를 쓰지 않고 조선말을 하는것, 《히노마루》를 게양하지 않는것, 《신사참배》라는것을 하지 않는것,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지 않는것, 심지어는 게다짝을 신지 않는것까지도 《반일》, 《반역》, 《반국가행위》로 범죄시하면서 로인들로부터 나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가림없이 벌을 주고 벌금을 물리며 붙잡아갔다. 말그대로 조선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고 모든 형태의 반일운동과 반일적요소까지 없애버리기 위해 광란적으로 날치였다.

일제의 책동을 짓부셔버리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잊지 못하시여 조선이 죽어가고있다는 이 기막힌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백두산에 나가서 조선은 살아있다, 조선은 싸우고있다, 조선은 반드시 살아난다는것을 실증해주지 않으면 안될 가장 절박한 리유로 되고있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그때 이런 용단을 내린다는것이 보통의 의지와 담력으로써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국제당이 존재하고 1국1당제원칙이 절대적인것으로 되여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누구도 가볍게 판정할수 없는 복잡하고 심각한 난문제였던것이다. 본질에 있어서 이것은 조선혁명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속히 국내에로 진출하여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전환기를 향하여 줄달음치게 할수 있었던 그 관건적인 시각 혁명의 운명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고심이 크시였으랴.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애국정신과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완벽한 철의 론리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남호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일대에서 벌린 군사정치활동경험을 총화하시고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과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와 백두산지구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문제, 공청을 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방침들에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의 혁명가들이며 조선의 혁명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투철한 자주적립장이 맥박치고 있었다.

지금도 남호두회의가 진행되던 잊지 못할 그 귀틀집을 그려보느라면 조선혁명의 주인은 바로 조선의 혁명가들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조선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선혁명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시던 절세의 애국자의 절절한 음성이 귀가에 쟁쟁히 메아리쳐오는듯싶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경지대와 백두산지구에로의 진출!

이것은 혁명투쟁의 전기간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수 있는 방침이였다.

또한 그것은 하루빨리 조국에로 진출할것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기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을 근거지로 꾸리고 국경지대와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린다면 일제의 야만적인 군사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비쳐줄수 있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자나깨나 기다리며 그 모습만이라도 보고싶어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었다. 이것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는 시위로 될수 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며 조국땅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뜨겁게 흘리는 조국인민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무장을 들고 일제를 통쾌하게 쳐갈겨버리는 격동적인 광경이 벌써부터 떠올라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을 시작하신 후 수많은 회의들을 진행하시였지만 로선토의가 그처럼 순조롭게 되고 회의참가자들의 열의가 그처럼 앙양된 회의는 처음이였다. 백두산으로 나아갈 날, 국내깊이에 진출하여 원쑤들과의 격전을 벌리게 될 날을 눈앞에 그리며 회의참가자들은 앞을 다투어 토론에 참가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백두산의 청년장군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력사적인 회의장에 세워진 붉은기는 우리 수령님께서 총대로 지켜내신 주체의 기치, 조선혁명의 표대였다.

남호두회의후 국경지대와 백두산지구로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항일무장투쟁은 더욱 본격화되였다. 이 과정에 백두산기슭에서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였다. 조국광복회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무장투쟁의 튼튼한 대중적지반으로 되였다.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과 조선혁명의 창창한 새날은 이렇게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력사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경지대와 백두산지구에로 진출할데 대한 남호두회의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70여년전 남호두회의의 그날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백두산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전력사적과정에 주체의 대, 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며 승리와 번영의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던 남호두회의 참가자들의 격동된 심장의 고동소리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절감하고 장군님따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의 박동소리로 이어져 더욱 높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높이 선군정치로 백승을 떨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놀지 않는 신념과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따를 때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혁명을 승승장구의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실지체험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에서 휘날리던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강성대국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혁명전설

신출귀몰의 지략

우리 나라에는 노래 《아리랑》과 관련한 전설이 많다. 그가운데는 천지조화를 겸한 병법으로 전투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에 대한 전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난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이끄시고 장백현의 어느 한 산마루에 오르시였다.

그날은 어찌나 맑게 개였던지 하늘엔 구름 한점 없었다.

주변의 지형을 두루 살피고 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면서 지휘관들에게 래일 아침 해뜰 무렵에 많은 적들이 여기로 달려들텐데 그동안 대원들을 푹 휴식시키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지휘관들은 어리둥절해졌다.

누가 적후정찰을 갔다온것도 없고 왜놈밀정을 잡아다가 심문한것도 없는데 언제 어느 시각에 달려든다는것까지 어떻게 미리 다 알고계실가?!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대원들에게 전투준비를 잘할데 대한 명령이 아니라 휴식명령을 주신것이다.

그이의 명령대로 지휘관들은 대원들을 푹 휴식시켰다.

그 이튿날 아침 날씨는 여전히 청명하였다.

방금 해가 떠오르려는 순간이여서 동녘하늘은 아름다운 감빛노을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산아래에서 적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 바로 그 시간에 적들이 나타난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태연하게 책을 보고계시였다. 대원들의 긴장한 눈빛은 모두 그이께로 쏠리였다.

적들이 기여드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말소리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이때였다. 보시던 책을 덮으시고 움쭉 일어서시여 적들이 기여오르고있는 산아래를 굽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을 향해 노래를 부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한 대원이 조용히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선창을 떼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하던 대원들이 하나둘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맑은 하늘에 몇장의 구름이 모여들더니 갑자기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조용히 내리는 부슬비소리는 마치도 누에가 뽕잎먹는 소리처럼 울려왔다.

온몸에서 힘이 부쩍부쩍 솟구쳐오름을 느낀 대원들은 큰소리로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래소리와 함께 비발은 점점 더 굵어지더니 삽시에 좌락좌락 소리치며 내리였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에 함뿍 젖은 적들은 흡사 강물에 빠진 풋병아리꼴이 되고말았다.

김일성장군이 천지조화를 부린다더니 그게 정말이라고 생각한 적들은 잔뜩 겁에 질려 제놈들의 기침소리,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에도 와뜰와뜰 놀라군 하였다.

산마루에서 울려퍼지는 《아리랑》노래소리는 바다처럼 가없이 펼쳐진 백두밀림을 뒤흔들었다.

녀대원들이 멋들어지게 넘기는 가락에 남대원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받쳐지니 《아리랑》노래소리로 산악이 온통 드르릉 울리는것만 같았다.

하늘땅을 울리는 《아리랑》노래소리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산으로 더 올라갈념을 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소낙비는 폭우로 변했다. 게다가 태풍까지 일었다.

쏴!쏴!

어느새 산골짜기에 물이 범람하였다.

결국 적들은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물귀신이 되고말았다.

그후 이 이야기는 항일유격대원들속에 널리 퍼지였고 《아리랑》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는 소문이 그대로 전설로 전해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황명희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

윤전군 관해리당위원회에서 농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이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쉴참에 농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해설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농산제4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수십년전 4월 어느날 관해리를 찾으시여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눈물겹게 이야기하였다.

력사의 그날 관해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산제4, 5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논은 좋은데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지 못하였다고, 앞으로 논을 다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토지정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작업반들과 가정들에서 오리, 게사니를 비롯한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문제, 기와를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훌륭한 농촌문화주택을 마련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에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수령님의 념원대로 농장마을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보란듯이 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전국농업대회 진행

1면에서 계속

그는 나라의 농업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촌들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원종, 채종체계를 바로세우고 다수확우량품종의 종자들을 많이 생산보장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들을 배치하는것과 함께 두벌농사적지를 바로 정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앞뒤그루농사에서 옹근소출을 내야 한다.

무비루스잔알감자종자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다수확품종의 감자재배면적을 늘이며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한편 콩농사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논벼농사에서는 선진적인 모기르기방법과 합리적인 재배방법, 과학적인 물관리방법을 도입하며 강냉이농사에서는 여러가지 사이그루 및 섞음그루재배방법으로 토지리용률을 높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야 한다.

유기농법의 요구대로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이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적인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을 농촌에 보내주고 영농작업에서 그 가동률을 높이며 자연흐름식물길과 관개건설, 관개구조물보수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축산기지들에서의 먹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도처에서 풀먹는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하여 말하였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수 있게 계단식남새생산조직을 짜고들고 공예작물생산단위들에 대한 영농물자보장과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키낮은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한 품종들로 과수원을 조성하고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에 힘을 집중하고 영농조직사업과 로력, 설비, 자재, 재정관리를 개선하며 선군시대 본보기농장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도, 시, 군들에서 벌방과 중간, 산간지대의 실정에 맞는 농사경험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사회적으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며 련관단위들에서 영농물자들과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장일군들은 맡겨진 농업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지휘로 대중을 알곡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자각하고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3대혁명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혁신을 이룩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당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고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있으며 무적의 군력과 강위력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기에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강성대국선포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락희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을 따르는 한마음을 안고 농촌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 한편 군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알곡증산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모든 농장들에서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허정옥은 척박한 땅을 옥토로 전변시키고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결사관철하여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빛내여온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깊이 새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110여정보의 논에 흙깔이를 하고 80정보의 밭에서 수천㎥의 돌을 추어냈으며 유기질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포전들에 실어냈다고 그는 말하였다.

또한 두벌농사를 통이 크게 하고 지방의 기후조건에 맞는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앞뒤그루에서 옹근소출을 내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올해농사에서도 다시한번 통장훈을 부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해안지역에서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떨친 함주군 동봉리 리당비서 김봉국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농장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등 당사업을 참신하게 벌림으로써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데 기여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선군시대 농촌당일군답게 사람과의 사업을 계속 잘하여 알곡증산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틀어쥐고 논벼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데 대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기사장 조룡남의 토론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는 다수확품종들의 재배면적을 늘이고 과학적인 비배관리에 힘을 넣는 한편 농장원들의 농업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과학농사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미곡벌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농사에서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유기농법에 의한 논벼생산에서 첨단을 돌파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룡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남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군안의 선전선동력량을 들끓는 협동벌에 총집중시키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신암리의 농사를 떠밀어주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 대중의 생산열의를 높여준 경험을 살려 올해에 군앞에 맡겨진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윤춘화는 지난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정보당 논벼생산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농사작전을 과학적으로 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였으며 저수지확장, 자연흐름식물길지선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였다고 하면서 올해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불러 청산벌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경대닭공장 지배인 문승철은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를 안고 자체의 힘으로 닭배설물에 의한 먹이생산기지를 일떠세웠으며 메탄가스생산기지도 꾸려 경영활동에 리용한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도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우량품종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먹이생산설비들을 개건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지배인 김창전은 인민보안성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 농장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전설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드넓은 과수원에 열매가 주렁지게 할 일념안고 온갖 지혜와 정성을 기울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여 올해에 새로운 과수밭을 더 조성하고 비배관리를 짜고들어 과일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사동구역 오류남새전문협동농장 분조장 리복실은 오류등판에 남새농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포전에서 몸소 배추의 무게까지 가늠해보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바치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남새3모작을 실현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이 나날 당의 믿음과 사랑을 심장에 간직하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할 때 당이 제시한 남새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체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원산농업종합대학 총장 리민철은 지난 기간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교육에 힘을 넣으면서 리론교육과 실물교육,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과 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한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는 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공로있는 대학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언급하고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교수교양의 질을 높여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과 함께 첨단돌파전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홍단군 서두농장 작업반장 성진은 종자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감자싹틔우기를 비롯한 영농공정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포전들에 많은 물거름을 내고 비배관리를 잘하는 등 대홍단식과학농법으로 감자농사를 지어 작업반이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였다고 하면서 올해에 다시한번 감자농사선구자의 영예를 떨칠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안군 소정리 리당비서 전종운은 농촌핵심들을 잘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추동한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고 기술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창조력과 지혜를 발동시켜 과학농사문제를 해결하는것과 함께 새 세대 청년들을 실농군으로 키워온 나날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는 모든 농장원들을 알곡증산으로 당을 받드는 선군시대 애국농민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전반적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농사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내주고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뜨거운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열정안고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철이 많아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첫달부터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고있다.

평양시, 함경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과 청진철도국을 비롯한 각 철도국들에서 1월에 이어 2월에도 파철모으기와 수송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평양시, 함경북도, 남포시, 자강도를 비롯한 각지 책임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철강재증산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어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그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국의 근로자들이 강철전선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평양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파철모으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1월과 2월 파철모으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중구역, 평천구역, 락랑구역, 서성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파철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는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파철모으기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특히 1월 파철모으기계획을 3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한 강동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파철모으기를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함경북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근년간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다녀가신 김철과 성강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그곳 로동계급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도에서는 파철원천탐구를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올해에 들어와 서만도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고있다.

남포시, 자강도, 평안남도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못쓰게 된 설비들을 대담하게 페기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황해남도에서는 모내기철전으로 파철모으기에서 높은 실적을 올려 금속공장들에 한의 파철이라도 더 보내주기 위해 이 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가고있다. 도에서는 매월 4차례에 걸쳐 집중수송을 진행하여 모아놓은 많은 량의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에 보내주고있다. 특히 신천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 4분기안으로 년간 파철모으기계획을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파철모으기에서 혁신적성과를 거두고있다.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매월 진행하는 파철집중수송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강철전선을 성심성의껏 돕고있다. 얼마전에도 농업성, 문화성,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들의 정무원들은 많은 량의 파철을 자동차에 싣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 그들의 증산투쟁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지난 1월 파철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한 각 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이 2월에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청진철도국을 비롯한 각 철도국의 일군들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수송전사들과 기관차도 함께 타면서 더 많은 파철과 부원료를 제철, 제강소들에 보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열의에 의하여 금속공장들의 숨결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올해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파철수송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금속공장들에 파철을 제때에 실어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나라의 동맥입니다.》

국에서는 금속공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 대한 물동수송을 앞세워 보장하는 원칙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지난 1월 국의 책임일군들은 아래단위에 내려가 파철수송에 동원할 화차와 기관차예비를 찾아나갔다. 그들은 객화차대들의 실태와 운영중에 있는 화차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 수십량의 화차예비를 얻어내게 되였다. 금속공장들에 보내줄 파철수송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국책임일군들의 사업태도는 국의 모든 수송지휘일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수송지휘일군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금속공장들의 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이려면 기관차와 화차들의 기술상태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를 자체로 수리보수하여 늘어나는 파철수송을 보장할 결심을 가지였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철판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재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의 수리기지를 더욱 보강하여 기관차와 화차의 수리정비에 드는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사령원들도 역들의 구내선을 하나하나 밟으며 화차들의 머무름시간과 차갈이작업 그리고 짐을 싣고 부리는 설비들의 가동상태까지 일일이 알아보면서 있는 기관차와 화차로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짐을 싣고 부리는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개조하면 여기서만도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일수 있다는 방도를 찾아쥐게 되였다. 그리고 수송지휘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실태를 알아보고 물동량확보사업을 비롯하여 화차들의 맞물림조직, 화차편성조직을 기동적으로 해나갔다.

어느 한 금속공장에 나간 한 수송지휘일군은 국과의 련계밑에 화차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구내에 들어온 화차들이 물동을 제때에 부리우고 빠질수 있도록 높은 조직지휘력을 발휘하였다. 결과 화차회귀일수를 종전보다 훨씬 줄일수 있게 되였다.

이런 혁신적인 투쟁기풍은 국아래 여러 단위에서도 발휘되였다.

송평련합역과 명간역의 수송전사들은 해당 단위의 당조직들과 인민위원회, 고금속사업소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강화하면서 파철을 실은 화물들의 머무름시간을 극력 줄이고 파철수송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길주청년역과 무산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앞선 차갈이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화차보수를 정상화하면서 매달 파철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강명근

강선으로 달리는 마음

강동지구고금속사업소에서

강동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1. 4분기 파철모으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성과속에는 강동지구고금속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의 땀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늘이자면 파철모으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제철, 제강소들에 파철을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난 기간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 많은 파철을 보내주어 강철증산에 이바지하여온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들어와 마음의 신들메를 더욱 바싹 조이였다. 소장 김원철동무는 새해 첫날부터 군안의 여러 지구에 나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 가두인민반을 비롯한 군안의 여러곳에서 근로자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쇠물폭포가 끊임없이 쏟아져나와야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추켜세울수 있다고 절절히 호소하며 파철원천탐구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그리고 자신부터 이 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파철원천지들을 찾아내는 한편 자신이 직접 군안의 제일 먼 지역들을 맡고 신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그 과정에 그는 어느 한 탄광에 파철원천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소장동무는 즉시에 이곳 탄광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탄광의 탄부들과 힘을 합쳐 폐갱속에 묻혀있는 적지 않은 량의 파철을 끌어내여 강선으로 보내주었다.

군안의 여러 지역에서 애써 모아들인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으로 보내주는 사업에서도 이곳 종업원들은 남다른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파철수송에서 난관이 제기될 때마다 이들은 조건이 보장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일군들은 군급기관들과 군안의 기업소, 협동농장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강선방향으로 나가는 빈차들을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고 종업원들과 함께 새날을 맞으며 상차작업도 하였다.

더 많은 파철을 모아 강선에 보내기 위해 애써 일하고있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모습은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감동시키고있다.

박준성

청진광산금속대학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사업열의를 북돋아준 체육경기

—기술대학의 면모를 갖춘 본보기대학!

최근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대학의 기술교육수준이 높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나라의 채취, 금속공업부문의 현대화, 첨단돌파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업이 잘될수 있게 교원, 연구사들을 밀어주며 정신력발동의 《송풍기》가 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수고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매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곳 대학에서 10여명의 능력있는 교원, 연구사들로 콤퓨터모의시험력량을 뭇고 김철의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던 때의 일이다.

콤퓨터모의시험이 본격화되고있던 어느날 현장에 들어선 초급당비서 장충호동무의 얼굴색은 밝지 못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자신들이 받은 과업으로 여기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교원, 연구사들의 눈에는 피발이 섰고 몸도 퍽 축갔던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며칠후에 있게 될 콤퓨터모의시험결과를 걱정하고있었다.

이날 초급당일군은 깊은 자책감을 안고 그들의 사업을 더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다졌다.

그 이튿날부터 콤퓨터모의시험에 동원된 성원들의 일과가 달라졌다.

아침산보와 식사, 건강검진, 모의시험, 배구경기, 밤참시간이 포함된 새로운 일과표가 나붙었던것이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한 일이였다.

그가운데서도 이채로운것은 배구경기일과였다.

시간이 아무리 긴박해도 초급당일군은 교원, 연구사들이 오후시간이면 한시간씩 배구경기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자신이 먼저 배구공을 들고 운동장에 나섰고 《심판원》이 되기도 하였다.

처음에 교원, 연구사들은 그닥 달가와하는 눈치가 아니였다. 식사시간마저 아까와 모의시험현장에서 밥술을 뜨던 그들이였던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과는 곧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교원, 연구사들속에서 쌓였던 피로가 가셔지자 사업의욕이 더 왕성해졌던것이다. 배구경기과정에 높아진 승벽심은 그대로 일욕심으로 이어져 모의시험이 적극화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이렇듯 배구열기로 사람들의 사기를 한껏 높여주는 한편 후방사업, 생활조건보장사업을 따라세우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아졌고 모의시험과정에 고심하고있던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예상외로 슬슬 풀려나가게 되였다. 그들은 제철로에서 환원이 잘되지 않는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등 우리 식의 철생산법을 완성하는데서 걸리고있던 어려운 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해결하였으며 김철의 현대화를 다그칠수 있는 지름길을 확고히 열어놓았다.

사업열의를 북돋아준 배구경기,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가지 참신한 방법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해나가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당사업기풍을 엿보게 된다.

본사기자 전경서

숭고한 도덕의리와 높은 공민적자각의 발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한 거세찬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가 계속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순결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개성시 관훈동에서 사는 오순옥동무는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며 자남산마루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해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과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정성껏 진행해온 그는 유서깊은 회령혁명사적지에도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지난 기간 그는 성의껏 마련한 수십종에 수만점의 관리도구들과 많은 지원물자를 100여차에 걸쳐 회령혁명사적지에 보내주었다.

사리원시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 김승일동무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미곡혁명사적관 관리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지난 기간 혁명사적관관리사업에 자기의 지성을 바쳐온 그는 지난해 9월 혁명사적관을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 또다시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은률군 금산포로동자구에서 사는 김혜순동무도 가족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사업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그는 금산포로동자구 가까이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판주변에 수백그루의 꽃모를 정성 다해 심고 관리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관리사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그의 가정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쇠돌수집경쟁도표를 만들어놓고 버럭무지속에 묻혀있는 많은 쇠돌을 수집함으로써 광산마을사람들로부터 《쇠돌가정》으로 불리우고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바친 영예군인들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미풍이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혜산농림대학 학생인 리정철동무는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선군시대 청년으로서, 제대군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이라고 하면서 고향인 수도 평양을 멀리 떠나 혜산시에 사는 영예군인 김예성동무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였다. 얼마전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고 만사람의 축복속에 한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원산견직공장 로동자 장미향, 부래산광산 로동자 최홍련, 재령군 삼지강리인민병원 의사 배춘옥, 청단군 금학협동농장 농장원 최은희, 철산군 동평협동농장 농장원 김향숙, 봉산군 구읍협동농장 농장원 김명심동무들도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하여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더해주고있다.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 평안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킨 락원의 로동계급을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주었다.

신의주편의봉사관리소 안경제작소 박순애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락원에 주신 과업은 우리모두가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이 담겨진 영예로운 과업이라고 하면서 시력검사기와 안경제작설비들을 가지고 현지로 달려나갔다. 그는 산소분리기제작에 떨쳐나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 대한 시력을 검사하고 눈에 맞게 제작한 안경들을 봉사하였을뿐아니라 많은 지원물자들도 보내주었다. 여러차례 현장을 찾아와 정결하게 제작한 많은 안경을 봉사하는 그에게 기술자, 기능공들이 거듭거듭 고마움을 표시할 때마다 박순애동무는 락원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의 자랑을 떨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진심을 터놓군 하였다.

평안북도교수강습 및 학생답사견학소 한철호동무도 락원산소분리기공장 명예종업원으로 등록하고 하루일을 마치고는 매일과 같이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는 락원땅을 찾았다.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땀도 진하게 흘리고 때로는 지성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겨주기도 하는 그의 진정넘친 모습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락원로동계급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이밖에도 신의주사회급양관리소 종업원들, 신의주시원림사업소 김창남, 신의주시 역전동 최정남, 신의주의학대학 학생 리성심, 평안북도위생방역소 의사 김경옥동무들을 비롯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가슴마다에 끓어번지는 애국충정의 열도를 최대로 분출시켜 산소분리기생산자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는 애국적헌신성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평양기관차대 책임기관사 박광세동무는 레루를 고이고있는 침목처럼 한생 조국을 떠받드는 뿌리가 될 한마음으로 두줄기 궤도우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나라의 동맥인 철도운수부문을 지켜선 남다른 긍지를 안고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던 기관차를 인계받아 자체의 힘으로 수십차의 실패를 거듭하며 지구와 부속품들을 만들어 새차처럼 복구하였을뿐아니라 증송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낡은 기관차를 자진하여 맡아 원상복구함으로써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두줄기 궤도우를 기운차게 달리게 하였으며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작업반원들을 극진히 돌봐주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황해남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지니고 지난해 뜻하지 않은 일로 사경에 처하였던 한 환자를 기적적으로 소생시켰다.

이곳 의료일군들은 환자를 위해 자기들의 피와 피부를 바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리였으며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친혈육의 심정으로 구미에 맞는 갖가지 영양음식들을 정성껏 해주어 그가 다시 혁명초소에 설수 있게 하였다.

봉천탄광 혁신1갱 채탄3중대 가족소대원들은 지난 몇해동안 수천척지하막장을 지켜선 남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나라의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철산과수농장 묘목작업반 반장 리태준동무도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부모잃은 10여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을뿐아니라 군에서 사는 영예군인과 전사자가족의 생활까지 잘 돌봐주고있다.

우리 사회에서 날로 더욱 활짝 꽃펴나는 고상한 미풍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진심을 바쳐 성실히 일해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높은 공민적자각의 발현으로 된다.

본사기자 김진욱

원산기관차대 일군들과 승무원들

심장으로 울리는 기적소리

전기기관차 《붉은기》5097호가 수리를 마치고 운행길에 나서던 날 원산기관차대는 여느때없이 설레이였다.

지난기간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앞장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짐들을 수많이 실어나른 《붉은기》5097호,

기관차의 중수리를 이전처럼 전문공장이 아니라 기관차대자체의 힘으로 해내고 또다시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갈수 있게 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원산기관차대에서 전문공장에서만 할수 있다던 《붉은기》5097호의 중수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끝낸 그 나날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의지를 힘있게 시위한 과정이였다.

수리전투를 앞두고 기관차를 마주하였을 때 일군들과 승무원들의 마음은 숭엄해졌다. 기관차앞부분에 부각된 붉은기가 그들의 눈시울을 달구었다.

붉은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이 어리여있고 조국수호전의 맨 앞장에서 우리 장군님 높이 휘날려가시는 혁명의 붉은기…

승리의 표대이며 전진의 상징인 그 기폭을 바라볼수록 전후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첫 기관차를 못내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그 이름을 친히 《붉은기》라고 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의도가 다시금 가슴쩌릿이 새기여졌다.

—올해의 총공세에서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려가자!

불끈 움켜쥔 주먹들이 솟구쳐올랐다. 모두가 산도 떠옮길 기세였다. 대장 강윤철동무를 비롯한 대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수리전투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었다. 이 나날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걸은 길은 수백리를 헤아렸고 현장에서 가진 기술협의회만도 10여차에 달하였다. 로동자들도 수리전투를 앞당겨 끝내기 전에는 현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견인전동기수리때에 있은 일이다. 기관차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전동기에 대한 수리는 시간을 다투고있었다. 이때 뜻하지 않던 난관이 조성되였다. 갑자기 기중기가 멈춰선것이였다.

중수리를 끝내기로 한 날까지는 이제 불과 며칠…

모두의 가슴은 타는듯 하였다. 더러는 손맥이 풀려 나앉으려 하였다. 이때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정치일군 림덕모동무가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전후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 때 기술신비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빈터우에서는 현대기계공업과 전기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낼수 없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불과 한해동안에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였다. 우리도 그때처럼 살자!

…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잠시후 육중한 견인전동기가 번쩍 들리여 수리장소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구령소리도 발걸음도 하나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어렵다고 하던 견인전동기의 수리를 단 하루동안에 끝내였다. 지난 시기 같으면 생각도 못하였을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위해 책임기관사 박광협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승무원들의 가족들도 전투현장에 물심량면의 지성을 바치였다. 지난 기간에도 기관사의 안해라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철길관리며 기관차와 화차 등의 수리정비에 남모르는 정성을 고여온 녀인들이였다.

이처럼 한덩어리로 굳게 뭉쳐 일떠선 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승무원들,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 집단적인 투쟁으로 하여 《붉은기》5097호 전기기관차는 짧은 기간에 중수리를 끝내고 다시금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리게 되였다.

날마다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높이 울리는 기관차들의 기적소리, 그것은 붉은기와 혈맥을 잇고 붉은기정신으로 높뛰는 철도수송전사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여서 그토록 기세차고 씩씩한것 아닌가.

오늘도 원산기관차대 일군들과 승무원들은 증송의 기적소리높이 10월의 경축광장을 마중해가고있다.

리경일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폐막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10일에 개막되였던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온 나라 근로자들의 관심속에 롱구, 배구, 탁구, 빙상호케이, 스키를 비롯한 8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은 완강한 투지와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4.25체육단 남녀선수들은 롱구, 배구경기에서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 제1위를 쟁취하였다.

폐막식이 26일 청춘거리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정인철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이 폐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과 일군들이 경기마다에서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칠 일념안고 우리 식의 전법과 기술을 끊임없이 련마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커다란 체육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부이 쑤언 쿠 공업상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호지명주석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그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웰남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참관하였으며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만경대 방문

조선과 웰남 두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사이의

회담록 조인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사이의 회담록이 26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상대측에서 부이 쑤언 쿠 공업상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과 레 반 끄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리명산 무역성 부상과 부이 쑤언 쿠 공업상업성 부상이 회담록에 수표하였다.

혁명의 노래 높이 부르며

연탄군인민병원에서 당조직의 지도밑에 혁명적인 노래들을 가지고 노래보급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고있다.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내가 지켜선 조국》, 《돌파하라 최첨단을》, 《변이 나는 내 나라》를 비롯한 혁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들을 부르며 이곳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의료봉사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갈 맹세와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노래보급사업으로 하여 병원에서는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친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며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이곳 의료일군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고영길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선천교원대학 교직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것은 체육활동이다.

이곳 일군들은 당의 대중체육정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교직원들에게 더욱 깊이 새겨주는 한편 여러가지 형태의 선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체육열의를 부단히 높여가고있다.

또한 자신들부터가 체육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체육의 날을 비롯한 계기들을 리용하여 대학적인 체육경기들도 자주 조직진행하면서 대학안에 누구나가 운동을 하는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이곳에서는 전체 교직원들의 드높은 체육열의속에 대학적인 체육경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활기있게 벌어지는 체육활동은 대학교직원들에게 전투적기백을 더욱 북돋아주고있으며 뜻깊은 올해에 교육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갈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겨주고있다.

로농통신원 김혜명

삶의 보람

조선인민경비대 방춘산소속부대 군인가족 홍혜영동무

뻐스는 경쾌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홍혜영동무의 가족이 영예군인들과 함께 원흥으로 가는 길이였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수도의 거리를 바라보던 홍혜영동무의 남편 김병철동무에게는 며칠전 안해가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영예군인들에게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보여주는게 어때요?》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못해내는 궁리가 없는 안해였다.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희한하게 변모되는 조국의 벅찬 현실을 영예군인들에게 보여주고싶어하는 안해의 마음은 얼마나 기특한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고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보통강기슭을 따라 달리던 뻐스는 만수대거리에 들어섰다. 현대적으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바라보며 연방 탄성을 터치는 영예군인들에게 홍혜영동무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열정에 넘쳐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를 바라보는 영예군인 신금철동무에게는 5년전의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한 젊은 녀성이 신금철동무의 집에 찾아왔다. 영예군인의 건강과 생활형편을 알아보고난 그는 《련희엄마》라고 불러달라고,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 이때부터 영예군인의 집으로 홍혜영동무의 발걸음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남편과 함께 품을 들여 마련한 세바퀴차를 가져왔을 때, 편리하게 신을수 있게 주문하여 만든 신발을 들고왔을 때 영예군인의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신금철동무를 통하여 6명의 영예군인들을 알게 된 홍혜영동무는 그들에게도 꼭같은 정을 기울였다. 영예군인 최영춘, 황성철동무들의 병치료에 좋다는 약재를 구하기 위해 수십리길을 걷기도 하였고 영예군인 안한철동무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 색다른 음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영예군인들을 성의껏 위해주는것이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은정에 보답하는 길이기에 힘들지 않았다. 그 나날 그들은 서로 친혈육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였다. …

뻐스는 대성산기슭을 따라 계속 달렸다. 홍혜영동무의 가족과 함께 새겨온 발자취들이 그 기슭에 오늘도 남아있는듯싶어 영예군인들의 마음은 후더워올랐다.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여온 희귀한 동물들을 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안던 날이며 유희기구에 몸을 싣고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던 날들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영예군인 김락구동무의 귀전에는 딸에게 주려고 마련했던 치마저고리감을 선뜻 들고와 새며느리에게 입혀주라고 하던 홍혜영동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고 영예군인 서윤성동무의 눈앞에는 귀여운 자기 딸의 돌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던 그의 정깊은 모습이 어려왔다. 영예군인 장호훈동무에게는 자기가 새 집을 받았을 때 홍혜영, 김병철부부가 문양고운 벽지를 가지고와 일손을 도와주던 날이 어제런듯싶었다.

동지적사랑과 친혈육의 정으로 수놓아진 추억들을 싣고 달리던 뻐스는 어느덧 원흥땅에 들어섰다.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규격포전들, 일매지게 줄지어선 과일나무지지대들, 휴양각같은 살림집들…

희한하게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며 흥분을 금치 못하는 영예군인들에게 김병철동무는 인민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때였다. 꽃묶음을 든 수십명의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이 《어머니!》하고 부르며 홍혜영동무에게로 달려왔다.

매달 많은 물자를 가지고 찾아와 자기들을 고무해준 어머니라고 병사들이 말할 때 영예군인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는 홍혜영동무의 정신세계가 아득히 올려다보였다.

향기로운 꽃속에 묻힌 《련희엄마》의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함뿍 피여올랐다. 생의 희열이 넘친 더없는 행복의 웃음이였다.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돈과 재물이 많거나 직위가 높아서 생기는것이 아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치는 순결한 마음에 인간이 누릴수 있는 참된 인생의 긍지와 보람이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껏 수놓아가고있다.
—평양수예연구소에서— 신충혁 찍음

변함없는 모습

개천시체신소 자작체신분소 한혜순동무는 수십년간 당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 성실하게 일하고있다.

지난 30여년간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삼복철에도, 눈보라 휘몰아치는 동지달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깨끗한 자욱을 새겨온 그의 높은 책임성에 사람들은 감동을 금치 못한다.

《오늘 신문에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이 또 실렸어요.》

절절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에 걸음걸음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며 맡은 초소를 지켜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한혜순동무의 가슴속진정이 얼마나 뜨겁게 울리고있는것인가. 그는 오늘도 우편물이 든 가방을 메고 남먼저 새벽길을 걷는다.

로농통신원 정창옥

탄부들이 잊지 못하는 당원의 모습

흑령탄광 로적갱 채탄공이였던 라정현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개인과는 비할바없이 귀중하고 영원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것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이라는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웅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한 삶일수록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생하는것이다. 흑령탄광 로적갱 채탄공이였던 라정현동무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탄광이 100일전투목표로 내세운 석탄생산계획을 마감짓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던 지난해 12월 25일이였다. 라정현동무가 초소장으로 일하는 채탄막장에서는 한초한초 긴장한 시간이 흐르고있었다.

이제 석탄을 한 탄차만 더 실으면 초소앞에 맡겨진 100일전투계획을 끝내게 되였다. 하기에 초소장인 라정현동무와 채탄공들의 마음은 기쁨에 떠있었다.

《빨리 일손을 다그칩시다.》라고 하면서 올리굴의 중단삼각점에 있던 라정현동무가 앞장으로 다가가자 현영철동무가 뒤따라섰다.

그때 아래쪽에서 막장을 인계인수하자는 다음교대 초소장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그 소리에 라정현동무가 벌써 교대시간이 되였는가고 하면서 일손을 잡으려는 때였다. 갑자기 뒤덜미에 찬기운이 느껴지더니 천정이 움씰하였다.

라정현동무는 반사적으로 《피하라!》하고 다급히 소리치면서 현영철동무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허나 라정현동무는 쏟아져내린 석탄무지에서 미처 몸을 뺄수 없었다.

뒤미처 동무들이 그를 구원해냈을 때에는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다.

《현동무는 어떻게 됐소? 오늘은 100일전투계획이 끝나는 날인데…》라고 말하는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이것은 한순간에 있은 일이였고 라정현동무가 원래의 위치에 그냥 있었어도 목숨은 바치지 않을수도 있는 정황이였다.

《그렇게밖에 행동할수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라정현동무의 당세포비서인 김영철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당원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고 가슴뜨겁게 추억하였다.

150일전투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서였다. 어느날 그가 속한 채탄중대의 초급일군협의회에서는 긴장한 월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한개 소대가 새로 꾸린 막장으로 옮겨가게 되여 중대적인 석탄생산과제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였던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중대장은 생산에서 제일 앞서나가는 라정현동무에게 미달된 계획을 더 맡아 해줄수 없겠는가고 물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라정현동무는 성미그대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하든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 중대장의 머리속에는 라정현동무가 갓 초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저녁 하루작업총화를 마치고 갱밖으로 나오던 라정현동무는 자기들의 막장가까이에서 일하는 굴진소대원들이 갱목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굴진속도를 높이는데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라정현동무는 자기 초소에서 준비했던 갱목을 서슴없이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한 탄부와 함께 밤늦도록 다음날작업에 쓸 동발을 가져다놓고야 집으로 퇴근을 했던것이였다.

이런 라정현동무였기에 원래보다 더 많은 생산계획을 받아안고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뜻밖의 정황으로 정전이 되면 수백m나 되는 구간에서 탄차를 밀어서라도 중대앞에 맡겨진 15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라정현동무는 자기 대원들을 끝없이 사랑하였으며 남의 일이라면 모든것을 바쳐 도와주는 인정미가 많은 참다운 당원이였습니다.》

이렇게 추억하면서 중대장 김강철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라정현동무가 일하는 초소에 한 제대군인이 배치되여왔다. 고향과 멀리 떨어진 생소한 곳에서 일하게 된 그 제대군인은 처음에 탄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여 이따금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하였다.

이런 그를 라정현동무는 집에 데려다 색다른 음식도 권하고 일도 같이하면서 친동생처럼 사랑해주었다. 그리고 그가 새살림을 펼 때에는 자기 집에 요긴하게 쓰려고 마련해놓았던 자재들을 가져다 집을 꾸리도록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긴장한 전투가 벌어질 때면 온 가족이 색다른 음식을 성의껏 마련하여 탄부들을 기쁘게 해주었고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안해와 함께 자기 집일처럼 뛰여다니며 도와주군 하였다.

하기에 함께 일하던 탄부들과 탄광마을사람들은 라정현동무를 그처럼 못 잊어 하는것이다.

특파기자 최재남

조국통일은 거족적인 애국위업

민족분렬의 년륜이 또 한돌기 새겨졌다.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진것으로 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큰 소원은 없으며 통일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다. 하기에 오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조선민족의 넋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겨레가 올해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면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확고히 실현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여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대중화를 보장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조국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이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추동할 애국의 일념을 안고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그들의 투쟁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당한 투쟁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과 박해가 계속되고있다. 지난해에도 남조선당국은 폭압기구와 체제를 강화하고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단체와 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소동이 벌어지고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 리행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벌려온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의 성원들이 체포구속되여 형벌을 받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과 투쟁을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남조선당국은 파쑈폭압의 마수를 민주로총, 진보련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물론이고 대화와 래왕, 협력과 교류를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 민간단체들에게까지 뻗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북의 동족과 통일문제를 론의하거나 련계를 가졌다는 죄 아닌 《죄》로 통일애국세력들이 매일같이 피흘리며 쓰러지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자그마한 싹마저 가차없이 짓밟히는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책동이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넣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운동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자면 남조선에서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의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조국통일운동이 거족적인것으로 강화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올해공동사설은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들이 철폐되여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저애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이 없이는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북과 남사이의 협력, 교류가 제대로 진행될수 없고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질수 없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하고 각계각층 동포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을 보장하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조국통일운동의 대중화는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애국열의를 총발동하여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으로 된다.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과 각계각층 애국력량의 단합과 그들의 단결된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 거족적인 위업이다. 거족적인 성격을 띠는 통일운동은 그 주체인 온 겨레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애국의 힘과 지혜, 열정을 하나로 합칠것을 요구하고있다. 해내외 각계각층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열의를 적극 북돋아주고 그들을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통일위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과 장애를 헤쳐나갈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의 애국의 열의와 의지에 달려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정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이 집권세력의 정치적목적과 리해관계에 따라 억제되거나 구속당하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 조국통일운동의 력사는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으로 대하면서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통일애국력량을 탄압하는 반통일파쑈폭압체제가 유지되는 한 언제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북남관계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요구에 배치되게 의로운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며 탄압하는 파쑈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과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이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그 힘으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 남조선의 통일애국운동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동포들사이의 접촉과 래왕, 대화와 련대련합을 적극 실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며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필승의 신심을 안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굳게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민족운명의 위대한 수호자

남조선인민들의 칭송의 목소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빛내여주시는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민족운명의 위대한 수호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재야인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막강한 국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물론 개인의 운명도 지킬수 없다는것이 력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이 진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군사적위협과 봉쇄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로 전진하고있는 이북의 현실에서 그 진가가 확증되고있다.

오늘 미국이 이북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선군정치로 온 겨레의 안녕을 지켜주고계시기때문이다.

정치평론가 문무정은 총대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가 아니였다면 오늘 태양민족의 긍지, 영예감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정녕 그분이시야말로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인도 비길수 없는 출중한 인품과 자질,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민족의 령수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정치학교수 박봉협은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장군님은 천만대적도 발밑에 굽어보며 쳐갈기시는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령장이시다. 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야전차를 집무실로 삼으시고 눈바람, 비바람을 다 맞으시며 험산준령을 넘으시고 날바다를 헤가르시며 선군정치를 펴셨다. 참으로 장군님께서 자주와 평화, 번영의 보검인 선군정치를 마련해주신것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대공적이다.

이러한 심정은 부산의 한 기업가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는 집에 찾아온 동료들로부터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겨레의 운명을 의탁할수 있는 참다운 정치지도자를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분은 오직 사상과 령도에서 출중하실뿐아니라 무적필승의 장군으로 명성떨치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다.

나는 TV화면을 통해 국방위원장님의 영상을 처음으로 뵈옵는 순간 《아,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주실 위대한분이시구나.》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처럼 위대하신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민족의 행운이고 끝없는 긍지라고 나는 당당히 말한다.

그의 말을 듣고난 한 동료도 《오늘 북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며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련승하고있다. 이처럼 막강한 북의 위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것이겠는가. 북이 다른 나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령도를 받고있다는것이다. 북의 위력은 곧 국방위원장의 위력이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민족의 운명과 령도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 종교인은 미국의 거듭되는 북침전쟁소동을 선군의 보검으로 쳐갈기며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시는 국방위원장님은 정말 불의와 악을 쓸어버리는 정의의 상징이시고 평화수호의 화신이시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선군령도로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통일강성대국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을 우러르는 남녘겨레의 뜨거운 진정은 인터네트에도 어려있다.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글에서 《북의 주민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바치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누가 자국의 령토를 침범한다면 더욱더 분노하고 맹렬하게 싸울 의지를 다지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된 북의 주민들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의 한 주민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의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 평화를 수호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장군님께서 계시여 북의 승리의 력사는 래일도 계속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변함없는 반통일적자세

올해공동사설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애국애족적인 립장의 발현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에 대한 해내외 온 겨레의 요구와 지향을 담고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는 시종일관 공동선언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그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왔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에 의해 북남관계에서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성과들이 이룩되고 전민족적판도에서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였다. 지난해 우리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것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따라 전진해온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힘차게 추동하려는 의지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남관계는 악화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보수적인 편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인 자세와 립장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파국을 빚어낸 저들의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고 정당화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한 그 어떤 적극적인 자세와 립장도 보여주지 않고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꼬물만큼도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조치들을 《근본적변화가 아닌 전술적변화》로 헐뜯었는가 하면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수 없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북남협력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공공연히 거부하고있다. 최근에만도 그들은 개성공업지구활성화와 금강산, 개성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에서 부당한 주장들을 들고나오고 그 무슨 《3대조건》문제를 운운하면서 실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였다. 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들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결렬위기에 빠지였다. 이러한 사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남관계문제는 북남쌍방간의 문제인것만큼 어느 일방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

핵문제와 같은 북남관계와 인연이 없는 문제들을 내세워 장애를 조성하고 빈말로만 《관계개선》과 《대화》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대결정책》을 고집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에 대한 기만우롱이며 동족의 성의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북남관계를 언제까지나 파국상태에 못박아두고 대결을 격화시켜 어떻게 하나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6.15통일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현 북남관계를 보고만 있을수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감출수 없는 《서민정책》의 기만적본질

민심의 버림과 배격을 받고있는 남조선집권세력이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 무슨 《친서민정책》을 추진한다고 들볶아대고있다. 그들은 시장과 탁아소, 고등학교를 비롯한 여기저기를 분주히 돌아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서민생활지원대책을 세우겠다.》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놀음은 기만적본질이 낱낱이 드러나 도리여 각계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서민들과 시장들을 찾아다닌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달라는 로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시키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며 《서민정책》을 운운하는것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죄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당국의 《친서민정책》이 각계의 비난만 초래하고있다고 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야유하고있다. 《통일뉴스》는 당국의 《친서민정책》은 《〈강부자정권〉의 위장전술》이라고 폭로하면서 그것은 집권세력이 《정치적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계책》이라고 그 본질을 까밝히였다.

사실이 그렇다. 남조선당국이 내세운 《친서민정책》이라는것을 구체적으로 놓고보자.

남조선집권세력이 지금까지 발표한 《친서민정책》으로는 《등록금후불제》, 《서민금융정책》, 《보금자리주택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서민정책》의 반인민적본질은 여지없이 폭로되고 말았다.

《등록금후불제》는 아무런 자금원천담보도 없이 나왔을뿐아니라 오히려 대학들의 등록금인상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대학생들을 빚더미우에 올려앉히는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등록금후불제》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등록금인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외국어대학교가 등록금의 대폭인상을 결정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서민금융정책》이라는것도 서민들에게 담보없이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것이라고 광고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거나 파산당한 돈없는 사람들은 대출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빈껍데기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서민금융정책》실현을 위한 자금도 당국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체들이 기부하도록 하고 그런 기부기업들의 세금을 절반이나 감면시켜줌으로써 결국 기업체들에는 배를 불리워주고 근로인민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들씌우는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의 경우도 사정은 다를바 없다. 그 무슨 《획기적인 서민주택정책》을 공약한 남조선당국이 지난해 8월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정책》이라는것을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것이다. 그것은 주택을 절반가격의 임대형식으로 판다는것인데 그 가격이 무려 30만~40만US$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이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엄두도 낼수 없는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이 《보금자리주택정책》이라는것은 오히려 부동산투기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만 야기시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광고하는 《친서민정책》이라는것은 바로 이렇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실지로 추구하는것은 반인민적인 《강부자정책》이다. 현재 남조선당국은 《부자감세정책》, 《공기업민영화정책》, 《4대강정비사업정책》, 《부동산투기규제완화정책》, 《사회복지예산축소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과 특권족속들의 배를 불리워주고있다. 이로 하여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평등과 《량극화》,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당국이 《친서민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친부자정책》을 손쉽게 강행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굴레는 비단으로 만들어도 역시 굴레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들고나온 《친서민정책》이라는것은 분노한 민심과 반《정부》투쟁기운을 눅잦히는 동시에 《서민보호》의 간판밑에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과 특권족속들의 리익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철두철미 반역정책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민심을 기만우롱하는것은 용납할수 없는 반인민적범죄행위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집권세력이 떠들어대는 《친서민정책》의 반인민적본질을 깨닫고 반역정책을 단죄규탄하는 대중적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송영석

독도강탈야망을 단죄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독도수호전국련대》 성원들이 19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날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식민지지배와 수탈, 학살을 일삼은 죄악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력사를 외곡하며 독도를 빼앗으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일본 시마네현이 매해 2월 22일로 제정한 《다께시마의 날》을 계기로 그 무슨 《기념행사》를 가지려 하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항의행동을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시마네현이 《다께시마의 날》을 당장 페기할것을 요구하였다.

부당한 처사를 규탄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민간급교류를 가로막아나선 《통일부》의 처사를 규탄하였다.

성명은 《통일부》가 불교조계종 승려들의 북과의 실무접촉을 위한 신청을 불허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북남협력과 교류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반세기이상 갈라져 살아온 민족의 아픔을 끝장내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룩된 모든 성과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반통일책동에만 매달리고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종교인들이 길이 막혔다 하여 주저하지 말고 북남화해와 협력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결정책철회를 요구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17일 사설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사설은 현 당국의 《대북정책》에서 변화의 기미조차 없다고 하면서 이른바 《기다림의 전략》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당국을 비난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여러차례의 실무접촉이 있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데는 남측의 책임이 크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심지어 현 당국이 《지금과 같은 상봉방식으로는 리산가족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있다고 까밝혔다.

최근 북이 관계개선, 민족의 화해와 협력 등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있다고 하면서 사설은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 북에 대한 압박강도만 높이다가는 남북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긴장은 고조될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지금이라도 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의 전략》에서 벗어나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물의를 일으키는 부정부패행위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최근 경기도남부지역의 시장들속에서 권력을 리용한 부정부패사건들이 련이어 폭로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군포, 오산시장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막대한 돈과 물품을 받아 탕진한것으로 하여 구속되였고 안성시장은 불법적인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시장직에서 밀려났다.

안산, 수원, 통인시장들도 권력을 리용하여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러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한다.

본사기자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규탄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편집인이 18일 론평을 발표하여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고있어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두고 《방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것》이니 뭐니 하며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이 북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내외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반인민투쟁을 벌리는 남조선

대결광신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온 민족이 떨쳐나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반통일세력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자고 호소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지금 북과 남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에 대한 겨레의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위업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동족대결소동이 아직도 계속되고있다.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여전히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적화해와 협력의 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극히 도발적인 《선제타격》폭언을 늘어놓아 북남대화와 협상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인택을 비롯한 남조선 《통일부》패거리들도 동족과의 래왕과 협력을 지향하는 민간단체들의 의로운 행동을 막아나서고있으며 부당한 구실밑에 북남협력사업들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새해벽두부터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대결소동은 대화분위기를 흐려놓고 긴장을 야기시켜 북남관계를 또다시 반목과 충돌에로 끌고가려는 의도적인 책동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자면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 시대흐름을 가로막아나서는 온갖 반통일적행위를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번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발표한 호소문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애국투쟁에로 부르고있다.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대결소동에 미쳐날뛰여도 《우리 민족끼리》정신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 통일애국세력들이 굳게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자주통일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본사기자 복은희

심화되는 《한나라당》의 내부갈등

남조선에서 세종시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내부싸움이 또다시 험악하게 번져가고있다.

최근 《한나라당》상층부는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를 념두에 두고 세종시문제로 인한 당내의 계파간 대립을 해소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하지만 《세종시수정안》을 기어이 추진하려는 친리계와 그것을 반대하는 친박계의 싸움이 다시금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한나라당》 대표는 《약속의 준수자체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세종시원안》에 대한 약속리행을 주장하는 박근혜를 우회적으로 공격해나섰었다. 박근혜도 즉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 《너무 기가 막히고 엉뚱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세종시원안이 잘될수 있는것인데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것이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이런 공방전이 계속되는 속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친리계와 친박계가 또다시 충돌하였다.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이 《세종시원안은 엉터리계획》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친리계의원들이 《세종시원안은 표를 겨냥한 야합의 산물이자 사생아》라고 하면서 정운찬을 적극 옹원하였다. 격분한 친박계의원들은 《총리가 원안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수정안을 말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친박계는 지어 《국무총리》의 사퇴와 해임을 위한 립법을 추진하고있는 야당들의 움직임에 동조해나섰다. 만일 야당들과 《한나라당》내의 친박계의원들이 공조한다면 《총리해임건의안》의 《국회》통과는 문제될것이 없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바빠맞은 《한나라당》상층부가 어떻게 하나 두 계파간의 갈등과 당내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세종시문제를 당분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것이다.

그리하여 두 계파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가싶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나서 불집을 일으켰다. 며칠전 남조선집권자는 어느 한 모임에서 세종시문제와 관련된 당내갈등의 리유가 정치적리해관계때문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의 《세종시수정안》반대움직임을 비난하였다. 이어 그는 《일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고싶다.》,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친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공격하였다. 집권자가 《강도발언》까지 해가며 공격을 가하는데 발끈한 박근혜는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민중이 하는것》이며 《집안에 있는 한사람이 마음이 변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신문은 볼썽사납고 유치해보이는 이 말싸움은 무작정 《세종시수정안》을 고집하며 친박계와의 대화는 고사하고 론쟁만 일삼아온 《청와대》가 일으킨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반대론을 눌러놓고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데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썼다.

지금 《한나라당》은 수습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심각한 내부갈등을 놓고 매우 초조해하고있다. 골머리를 앓던 《한나라당》상층부가 해결책으로 들고나온것이 《세종시수정안》의 당론변경을 위한 의원총회소집이다. 하지만 친박계는 의원총회가 《민중앞에 또다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줄것》이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립장을 표시했다.

두 계파가 옥신각신하는 속에 지난 22일 세종시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였다. 그런데 예견했던바그대로 총회에서 두 계파는 정면충돌하고 회의는 란장판이 되고말았다. 총회시작부터 친리계는 무엇이 두려운지 총회를 비공개로 할것을 주장했고 친박계는 두려울게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수를 차지하는 친리계의 주장으로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였는데 박근혜는 회의참가를 거부하였다. 총회에서 친박계의 한 의원은 박근혜에 대한 친리계의 인신공격성발언을 문제시하면서 《약속과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반면에 친리계의원들은 세종시문제는 《로무현전 〈대통령〉이 재미를 보았다고 말할 정도로 정치적계산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저들을 도와나설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날의 총회는 두 계파간에 날로 심화되는 대립관계만 립증했을뿐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다. 총회는 친리계와 친박계의 대립관계가 결별단계에 들어선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세종시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부싸움은 한마디로 정치인의 《약속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와 오만과 독선으로 반대파를 억누르며 이전 《정권》이 추진해온 모든것을 파괴하고있는 집권자사이의 싸움이라고 평하면서 집권자가 지금처럼 박근혜를 몰아대며 그의 감정을 계속 건드릴 경우 세종시문제와 관련한 두 세력의 타협은 그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선군령장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웰남,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끼스딴, 스위스, 뿔스까,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우간다, 적도기네, 기네, 나이제리아, 메히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와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우리 나라 상설대표부에서 연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친선모임, 영화감상회가 8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으며 그 앞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놓여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상임부부장,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문화, 체육 및 관광성 부상, 이란외무성 부상과 총국장들, 알 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 군대 부총사령관, 인도네시아인민협상회의 의장, 외무상, 민주당 대외관계담당 위원장,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말레이시아 국회상원 의장, 중국인당, 인민운동당 국제부 성원들, 몽골 국가대회의 부의장, 국방상, 대통령대외정책고문, 인민혁명당 비서, 파키스탄과학기술상, 국회의원들, 스위스외무성 국무부비서, 뿔스까농민당 비서, 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 (당수),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오스트리아국제문제연구소 소장, 국가인쇄소 소장, 외무성 국장, 우간다 3부수상 겸 내무상, 적도기네 외무, 국제협조 및 프랑스어사용국담당성 총서기와 총국장들, 민주당 국제부 부부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국회의원들, 미국사회로동당 지도부성원들 등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책임자들, 해당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그리고 제네바유엔사무국 총국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지역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상임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형제적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인민은 새해에도 모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올것이다.

우리는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와 다방면적인 협조를 언제나 중시하고있으며 이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란외무성 부상과 알 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이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과 제재속에서도 자주의 길로 꿋꿋이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영국신공산당은 언제나 그러하였던것처럼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투쟁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능의 보검인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신다.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조선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것이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상탑》, 《강성대국의 불보라》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들이 특집하였다.

《빠뜨리오뜨》 제5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민족의 옳바른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네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난 세기 말엽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쏘련과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어떤 력사의 도전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군대, 국가에 대한 비범한 령도력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니시고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계신다.

오늘날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조선식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이시다.

《쎄르쁘 이 몰로뜨》 제2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첨예한 세계정치정세속에서도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의 승리로 2009년을 전환의 해로 빛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웨쩨란》 제6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걸출한 위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고 그이에 대하여 정중하고 친근하게 호칭한 사실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모든 사상리론적문제들을 고전의 리론과 명제에 구애됨이 없이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으며 최근년간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쁘리아무르스끼예 웨도모스찌》 12일부는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의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 기자회견에서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 에리크 라로쉐가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체류기간 받은 소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보건분야에서의 발전도 이목을 끌고있다.

방문기간 여러 보건기관을 참관하면서 그것을 확인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의료봉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누구나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보건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조선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다니고있다.

모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의료봉사를 해준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에서는 의료봉사사업을 국가가 맡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우월한 보건제도하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그들이 자기 령도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훌륭한 보건시책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감동되였다.

보건기관들에서는 높은 수준의 발전된 고려의학으로 의료봉사를 하고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예방치료사업에 힘을 넣고있는 조선에서는 각종 의료설비들과 효능높은 약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무병장수를 노래하고있다.

그것은 그들이 선진적인 보건제도에서 살고있기때문이다.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 진행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가 2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교육상, 문재철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호쎄 마누엘 갈레고 몬따노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고있는 꾸바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난 1년간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올해사업계획이 토의되였다.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수뇌자회의

통합과 발전에 관한 제2차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수뇌자회의가 22일과 23일 메히꼬의 깐꾼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26개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의 통합을 다그치고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종식시키며 아이띠에 대한 인도주의적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미국을 배제하고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나라들을 모두 망라하는 새로운 통합기구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끝에 발표된 성명은 미국이 반꾸바법인 《헬름즈—버튼법》을 페지하고 꾸바에 대한 봉쇄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여러 나라들 협조

볼리비아와 아르헨띠나가 22일 천연가스공급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두 나라는 천연가스수송관을 개건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같은 날 꾸바와 알제리는 제약공업부문에서 호상협조할데 관한 문건을 채택하였다.

발전소 건설

방글라데슈에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정부는 2개의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쿨나지역에 일떠서게 될 이 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은 총 132만kW에 달하게 된다 한다.

새로운 천연가스발 발견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최근 새로운 천연가스발이 발견되였다.

투라이프시로부터 동쪽으로 9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 이 가스발에서는 하루평균 1 210만ft³의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한다.

23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새 철도 개통

먄마에서 20일 싸가잉주와 카친주사이의 새 철도가 개통되였다.

이 철도의 길이는 25.6㎞에 달한다. 새 철도의 개통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한다.

본사기자

에즈흐의 력사유적

로씨야에서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로씨야에서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23일 모스크바의 크레믈리 성벽결에 있는 개건된 무명전사묘에서 《영원한 불길》을 다시 지피는 의식이 있었다.

로씨야대통령 드미뜨리 메드베제브가 로병들과 련방회의 대의원들, 정부성원들, 여러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여기에 참가하였다.

메드베제브대통령이 《영원한 불길》을 지폈다.

이어 화환과 꽃송이들이 무명전사묘에 진정되였다.

이보다 앞서 22일 로씨야군대극장에서 경축야회가 진행되였다.

로씨야대통령은 경축야회에서 한 연설에서 올해에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5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전쟁로병들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발휘한 위훈과 그들의 삶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복무의 영원한 귀감으로 남아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 국가의 전략적목표는 그 어떤 침략과 위협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로씨야련방무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나라의 여러 도시들에서 로병들과의 상봉모임, 경축시위, 영화감상회, 음악회, 경축공연, 군인들의 열병행진이 진행되였으며 수도와 《군인영광의 도시》들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축포가 올랐다.

뽀슈낀광장 등 수도의 여러 곳에서는 로씨야련방공산당, 로씨야자유민주당을 비롯한 정당, 단체대표들의 시위와 집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수단의 다르푸르지역 분쟁종식을 위한 협정 체결

수단의 다르푸르지역 분쟁종식을 위한 협정이 23일에 체결되였다.

까타르의 도하에서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와 반정부세력 대표들이 협정에 조인하였다.

협정에 따라 쌍방은 7년동안 지속되여온 다르푸르지역에서의 무장분쟁을 끝내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무장분쟁으로 지금까지 30만명의 사망자와 27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한다.

특정한 나라들의 의사에 굴종하지 말것을 주장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21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활동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내린 보고서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 보고서가 이란에 정치적압력을 가하고 자기 나라가 현대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계획을 법적인 견지에서 옳바로 보고 이란의 합법적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특정한 나라들의 의사가 국제공동체에 강요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소를 자아내는 황당한 구실

최근 미국이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산하의 한 건설사령부에 새로운 제재를 실시하였다. 문제의 건설사령부가 거리와 고속도로, 수로, 송유관대상건설뿐아니라 농업재건대상건설에도 관여하는 등 《외부세계와의 사활적인 련계를 유지하고있기때문》에 제재대상에 속한다는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제재구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에 《테로지원국》, 《핵무기개발국》모자를 씌워놓고 이 나라의 개별적회사들과 기구들을 각종 명목으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대량살륙무기를 획득》하는데 도움으로 되는 기술이나 물품을 이란에 수출하거나 제공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들까지 들볶아댔다.

거리와 고속도로, 수로, 송유관대상건설은 물론 농업재건대상건설이 《대량살륙무기》추구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것은 론할 여지도 없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미국이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제재대상에 올렸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의 끈질긴 제재속에서도 이란은 개의치 않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를 밀접히 하면서 국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제재로 이란을 질식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맹랑하기 짝이 없는 헛공사로 되고있다. 국제적인 제재놀음이 파탄된데 급해맞은 미국이 《외부세계와의 사활적인 련계》요 뭐요 하고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제재대상에 올린것이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놀음은 원유자원이 풍부한 페르샤만지역에서 저들의 손발을 얽어매는 역효과만을 빚어내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이란제재놀음에 조소를 보내고있다.

자연피해

• 뽀르뚜갈의 마데이라섬에서 20일 폭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큰물과 화사태가 일어나 약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주민지역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나무들이 넘어지고 다리들이 끊어져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한다.

• 파키스탄의 코히스탄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눈사태로 19일현재 사망자수가 100명으로 늘어났다 한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 인도네시아의 반둥시에서 23일 무더기비에 의한 화사태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6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4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본사기자

계속 감행되는 민간인살인만행

▲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9일 미군은 파키스탄 서북부의 한 주민지역에 폭탄과 미싸일들을 마구 퍼부어 16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 2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많은 건물들을 파괴하였다.

미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1일 아프가니스탄의 중부지역에서 나토군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주민 33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부상당하였다 한다.

나토군의 이러한 살인만행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1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한 주민지역에 쳐들어가 땅크포사격을 가하여 5명의 무고한 주민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보다 앞서 20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서 주민들에게 총포사격을 가하여 1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다.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만행은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라크에서 미군직승기 추락

이라크의 북부지역에서 21일 《반테로전》에 돌아치던 미군직승기가 추락하여 직승기는 박산이 나고 거기에 타고있던 조종사 2명이 즉사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단평 일제식 《공문》

얼마전 일본의 도꾜 아라까와구의 한 소학교에서 있은 일이다. 수업도중 한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에게 일본인랍치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선생은 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킨적이 있다.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선생의 대답을 듣고난 학생은 《일본인으로 태여난것이 부끄럽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여론화되자 현지교육당국은 선생을 대상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하였다.

사건해명에 나선 선생은 《학급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고 또 조선에 대해 나쁜 영상을 심어주는것으로 수업을 마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당시의 자기 심정을 그대로 말하였다. 그런데 구교육당국은 선생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모든 학교들에서 이와 류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과거 일제의 침략력사를 사실그대로 말해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이 과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면서 오직 저들의 침략적리익을 자로 하여 흰것도 검다는 식으로 하달하던 《공문》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직 진실만을 가르쳐야 하는것이 신성한 교정이고 교원의 의무일진대 일본반동들이 세상에 드러날대로 드러난 과거 일제의 침략죄행마저 사실그대로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교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발광하고있으니 무지막지하기 짝이 없다.

손바닥으로는 해빛을 가리우지 못하는 법이다.

몇몇 교원들의 입을 봉하게 하는것으로써 과거 일제의 피비린 죄악을 은폐시키며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해지는것을 막아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야말로 군국주의에 환장한자들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거꾸로 된 력사관을 심어주어 그들을 어느때든지 재침의 길에 내몰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것을 두고 제 죽을 날을 스스로 청하는자들의 어리석은 광대놀음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백문규

부패한 자본주의세계의 진면모

자본주의사회에서 눈뿌리를 자극하며 번쩍거리는 불장식들과 각종 광고들, 상점들의 호화상품들은 자본주의세계의 《물질적번영》을 보여주는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세계의 썩어빠진 진면모를 가리워주는 한갖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초보적인 로동의 권리마저 잃고 극소수 자본가들의 치부와 향락의 희생물로 되여 사회의 버림을 받고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명당 1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실업자수가 317만명으로서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47만명이나 더 늘어났다.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달보다 18만 5 000명 증대되였다.

실업자가 되여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감에 잠겨있는 근로자들의 처절한 모습은 그 어느 자본주의나라에서나 다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가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떠돌아다니고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미국에서 청년실업자수는 지난해말까지 160만명이상에 달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직업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60여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이딸리아에서는 지난해말까지 청년실업률이 26.9%에 이르렀으며 영국에서는 2011년말에 가서 청년실업자수가 지금보다 거의 3배나 증대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약과 알콜에 물젖어 부패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있다.

얼마전 세계보건기구는 17개 나라들에서 진행한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미국이 마약람용자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밝혔다.

지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마약의 일종인 마리후아나의 사용이 공공연히 허용되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지난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간 청소년들이 2만 5 700여명에 달하였으며 영국에서는 해마다 3만~4만명이 알콜람용의 후과로 목숨을 잃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성행하고있는 마약밀수 및 밀매행위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적발된 각성제밀수행위만도 그 전해보다 49% 늘어난 164건으로서 1966년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프랑스와 뛰르끼예에서 압수된 각종 마약은 각각 9t 850㎏, 1t 590여㎏에 달하였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번영》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수자와 사실자료들은 자본주의제도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한것 같지만 인간이 초보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정신육체적불구자로 전락되는 부패한 사회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터에 막대한 병력을 쏟아부어 병력난에 허덕이고있는 미국이 동성련애자들에게 《류다른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최근 미국에서 론난을 불러일으키는 동성련애자들의 공개적인 군사복무허용문제를 보자.

미국대통령이 현재의 동성련애자공개군사복무제한조치를 페지하여야 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자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등 군부우두머리들이 잇달아 그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미국방장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동성련애자공개군사복무제한조치를 페지해야 한다고 한것만큼 곧 그 검토사업에 착수할것이라고 하였다.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동성련애자들의 《공개적인 군사복무가 군사력을 향상》시킬것이라고 떠들면서 기존의 동성련애자공개군사복무제한조치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기때문에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군내부에서 동성련애자라는 증거가 적발되면 강제제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오고있다고 한다.

현재 미군에 복무하고있는 동성련애자수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6만 5 000명정도로 추산되고있다.

미국방성의 통계에 의하면 1993년이후 현재까지 1만 1 000명의 동성련애자들이 강제제대되였다.

그러니 동성련애자들의 《공개적인 군사복무가 군사력을 향상》시킬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하다면 미국이 동성련애자들의 공개적인 군사복무허용을 떠드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병력난과 관련된다.

지금 이라크뿐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골탕을 먹고있는 미국에서는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사태》가 터지는 경우 투입할 미군이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미국에서는 청문회가 련일 벌어지고 여기서 아귀다툼이 일어나고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파견된 미제침략군속에서 사망자수가 끊임없이 늘어나 불안과 공포가 커가고있다. 미군의 시체더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지금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이 되여 전전긍긍하고있다.

정신이상에 걸린 사람들까지도 군대징집대상에 포함시키고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동성련애자들의 공개적인 군사복무허용문제를 일정에 올리고있는것은 그와 관련된다. 동성련애자들까지 군대에 긁어모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니 《최정예》를 자랑하는 미군이 참 가련하게는 되였다.

공정한 여론은 미국이 동성련애자들까지 전쟁터에 내모느라고 진땀을 뺄것이 아니라 비법적인 강점지역들에서 피묻은 손을 떼야 한다고 야유조소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현도

ㄱ-01033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